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고찰

최 호 립
(서울대학교 철학과)

I. 서론

지금까지의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해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인간의 정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적 동물’일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정의이기는 하나,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종적 특성으로서 ‘이성’을 상정한다는 것은 얼핏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성¹⁾을, 즉 인식하고 추론하고 반성하는 등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철학사적인 전통에서부터 로크의 인격 개념인 “이성과 반성 능력을 갖고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사유할 수 있으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하는 지적인 존재”²⁾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로크에게 있어서의 인간은 사유함, 즉 이성을 전제로 하면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간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참혹한 살인 사건을 목격했고 그 사건의 범인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도 아니다.”라든지, “사람이면서

1) 여기서의 이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적 이성’이다.

2)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bridged and Edited by Kenneth P. Winkler)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6, p.138.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말을 하게 된다. 특히 그 살인 사건이 매우 참혹하면서도 고도로 계획되어 있고 범죄자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주위를 놀랍게 할 경우에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말들에서 볼 때, 단지 지적인 수준만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즉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이라는 기준이 다시금 인간에 대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성과 윤리성이라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볼 때, ‘인간’이라는 개념은 그와 유사한 여러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중첩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을 동물과 구별해 줌으로써 단지 인간의 종적인 특성으로 여길 수 있는 기준들로 정의되는 ‘인간’이라는 개념과,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종적 특성 이외에도 인간 사회에서의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시 구별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개념이 그 것이다. 앞서 인용한 로크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 개념은 사실상 큰 구분이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논의들에서는 ‘인격’이라는 개념을 ‘인간’이라는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칸트에게 인격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칸트의 입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칸트의 인격 개념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정초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정초된 인격 개념이 칸트의 철학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격 개념이 칸트의 철학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II.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할 때, ‘이성’이라는 기준이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것이라면, ‘인격’이라는 기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양의 전통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성격을 많이 갖는다 할 수 있는데, 유교나 성리학의 기본 계획이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려 했던 것인 만큼 단순한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상의 인격적 존재를 상정하고, 그러한 존재를 지향했던 것이다. ‘人格’이라는 한자어를 분석해 보아도 이러한 동양적 전통에서의 인격개념을 볼 수 있다. 우선 인격이란 사람에 한정되어 있으나 단지 인간이기만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느 수준 이상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격에서의 ‘격(格)’자는 나무(木)와 다다른다는 뜻의 각(各)이 합쳐지게 되어 나무가 다다라야 할 상태인 다 자란 나무를 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격은 인간이 다다라야 할 상태, 즉 인간이 인간답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

서양의 전통에서의 인격인 ‘person’은 처음부터 이러한 도덕성을 갖춘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person’의 어원인 라틴어 ‘persona’는 본래 연극에서 배우가 쓰던 가면을 뜻하는 말이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고, 연극에서의 배우를 의미하기도 하여 지금과 같이 개인이나 인격 등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person’이라는 말은 인격을 의미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개인은 특정한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이해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person’이란 단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과 인간이 가지는 생물학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면 사회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인격이나 인격성이라는 개념은 단지 이러한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범적인 존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칸트의 기본적인 인격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의 저서에서 드러나는 인격(성)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다.

3) 박균섭, 『유교의 인격 규정—공자의 입론, 그리고 안연과 재아—』, 동양철학연구 제5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Ⅲ. 칸트의 인격 개념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에서 다음과 같이 인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너⁴⁾의 그 위엄 있는 근원은 무엇이며, 경향성들과의 혈연을 도도하게도 끊어버리는 너의 고귀한 혈통의 뿌리를 사람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것이며, 인간만이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소홀히 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떤 뿌리에서 유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아니라, 인간을 (감성 세계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바로 그것, 오로지 지성만이 생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체 감성 세계를, 그와 함께 시간상에서 경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인간의 현존 및 모든 목적들 전체-이것만이 도덕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무조건적인 실천적 법칙들에 적합한 것인데-를 자기 아래에 갖는 사물들의 질서에 인간을 결부시키는 바로 그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격성으로, 다시 말해 자유 내지 전 자연의 기계성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곧 자기 자신의 이성⁵⁾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 법칙들에 복종하고 있는 존재자의 한 능력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칸트는 인격성을 자유나 자연의 기계성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성⁵⁾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 법칙들에 복종’하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자율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칸트의 인격성은 단지 도덕성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4) 그 앞의 문장의 의무를 지시한다.

5) I. Kant,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pp.193~195. <O154, O155> (번역본의 면수와 칸트의 원전 초판본을 의미하는 “O”를 병기한다.)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⁶⁾

이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령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목적으로서의 인격(성)은 앞의 인용문에서 의무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도덕 법칙인 정언 명령에 대한 존경과 의무로 말미암아, 실천적-필연적으로 이 법칙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칸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있는 것이 인격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를 지지하며 명령에 대해서 존경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격개념인 것이다.

1. 인격의 근거로서의 자율

칸트 철학에서 나타나는 인격 개념의 대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율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격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격 개념이 어떻게 해서 자율로 이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의 ‘자율’이란 자기 입법적이며 그 법칙에 스스로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이란 다시 말하면 의지의 자율이다. 이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 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⁷⁾ 이러한 의지의 자율은 자유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 자유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자유일 뿐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있는데, 이는 순수한 그 자체로서 실천적인 이성 자신의 법칙 수립이다.⁸⁾ 그런데 인격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 즉 자연적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이 어떻게 가능한지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어떻게 도출 될 수 있을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경험세계를 지배하

6)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148. <IV429> (번역본의 페이지와 학술원판 IV권의 면수를 병기함.)

7) I. Kant,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p.92. <O58>

8) 같은 곳. <O59>

는 법칙인 자연적 인과성과 양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단지 자연 필연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와는 다른 적극적 자유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지를 알아봐야 한다.

1) 자유의 구출

그런데 이러한 자유개념은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에서 세 번째 것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칸트는 자연의 인과성에서 독립해있는 자유의 인과성에 대해서도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고 반정립인 자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화를 하고 있다.

칸트는 이 셋째 이율배반에서 다음과 같은 정립과 반정립을 제시한다.

정립: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인과성은, 그로부터 세계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의한 인과성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반정립: 자유는 없다. 오히려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오로지 자연 법칙들에 따라서 발생한다.⁹⁾

정립에 대한 증명은 인과의 연계를 무한 소급했을 경우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최초의 원동자’, ‘제1의 시작’을 자연적 인과성만의 체계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적 인과성 외의 인과성이 없다고 가정 하면, 발생하는 것 모두는, 그것이 불가피하게 규칙적으로 그에 뒤따르는 어떤 앞선 상태를 전제”¹⁰⁾하고 그 앞선 상태 또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그에 앞선 상태, 앞선 상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계속해서 앞선 상태를 전제할 것이다. 이때 그 앞선 상태 중의 하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느 시점에는 없었다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라면, 그 뒤에 발생

9) I. Kant,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2권), 아카넷, 2006, pp.656~657. <A444, A445=B472, B473> (마찬가지로 번역본 페이지와 원문 면수를 병기함.)

10) 위의 책. p.656. <A444,A446=B472, B474>

한 상태 역시 특정 시점에서야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역시 특정 시점에 발생한 앞선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¹⁾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인과성만으로는 제1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자연적 인과성은 세계의 모든 인과성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했으므로 모순이 되어 자연적 인과성 외의 인과성, 즉 자유의 인과성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정립에 대한 증명은 “초월적 의미의 자유가” 인과적 연계에 선행하여 “절대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는 어떤 사건의 원인 역시 절대적인 시초인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원인을 갖지 않는 시초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현상적인 인과법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순된다는 설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자료는 경험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 그 경험적 자료들은 인과법칙을 따르는데, “초월적 의미의 자유”는 이러한 “인과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허한 사고의 산물이다.” “자연의 법칙들로부터의 자유(독립성)는 강제로부터의 해방이기는 하지만, 또한 모든 규칙들의 실마리에서의 해방이기도 하다.”¹²⁾

이러한 칸트의 논의를 따르게 되면 도대체 자유란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이다. 자유가 인과성이라는 자연법칙의 보편성과 함께 성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의 해결, 즉 자유와 인과성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

무릇 현상들이 사물들 그 자체라면, 자유는 구출될 수 없다. 그 때에는 자연은 모든 사건의 완벽한 그리고 자신만으로 충분하게 규정하는 원인이고, 사건의 조건은 항상 오로지 그 결과와 함께 필연적으로 자연법칙 아래 있는 현상들의 계열 안에 함유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만약 현상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것 이상의

11) 위의 책, p.656. <A444, A446=B472, B474> 참조.

12) 위의 책, p.657. <A445, A447=B473, B475>

아무것도 아니라면, 곧 사물들 자체가 아니라 경험적 법칙들에 따라 연관된 한낱 표상들이라면, 현상들 자신이 현상들이 아닌 근거들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예지적인 원인은 그것의 원인성에 관해서는 현상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의 결과들을 현상하고, 다른 현상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것의 원인성과 함께 계열 밖에 있으며, 그것의 작용결과들은 경험적 조건들의 계열 안에서 마주쳐진다. 그러므로 그 작용결과는 그것의 예지적 원인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되면서도, 동시에 현상들과 관련해서는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현상들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¹³⁾

여기서 사물자체와 현상과의 구분을 통해서 예지계의 원인성, 즉 자유의 가능성을 구출하게 된다. 사물자체의 세계에서는 오직 자연적인 인과법칙의 영향만을 받을 거라고 생각될 뿐이고, 현상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인과법칙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나, 다만 예지계의 원인인 자유는 현상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원인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현상 세계에 작용함으로써 자연 필연성인 인과법칙과 함께 양립 가능하다. 칸트는 순수 이성의 이율배반 중에서 각각 분량과 성질의 범주와 관련된 앞의 두 이율배반인 첫 번째, 두 번째 이율배반의 경우에는 수학적 이율배반이라 하여 정립과 반정립이 모두 틀렸다고 하지만, 다른 두 이율배반, 즉 각각 관계와 양상 범주와 관련된 셋째, 넷째 이율배반의 경우에는 역학적 이율배반이라 칭하면서 정립과 반정립이 보는 관점에 따라 모두 옳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¹⁴⁾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상계의 관점에서는 자연적 인과성이 확고한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의 원인성은 예지계의 관점에서 자연적 인과법칙과 양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원인성들의 작용결과들은 자연 필연성에 따라 현상들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결과로 나타날 경우

13) 위의 책, p.727. <A536, A537=B564, B565>

14) 하영석, 『칸트에 있어 인격성의 근거로서의 자유』, 『철학』 vol.33, 한국철학회, 1990 참조.

에 그것의 원인이 필연적으로 현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지적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작용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예지적인 원인을 통해서 나온 작용결과인 현상의 경우에도 다시 전적으로 자연연쇄의 한 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감성세계에 속하는 것이다.¹⁵⁾ 이때에 예지적인 원인은 그 것이 현상인 것은 아니지만 현상에 작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인과의 계열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자율로서의 자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유 개념은 자연적 인과성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 개념은 자연적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극적 자유이다. 그런데 “자유 내지 전 자연의 기계성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고유한, 곧 자기 자신의 이성에 의해 주어진 순수한 실천 법칙들에 복종하고 있는 존재자의 한 능력”¹⁶⁾으로 정의되고 있는 인격성의 개념을 볼 때, 이러한 소극적 자유에 대해서만 논증되는 것은 부족하다. 자연적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에서의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로 단지 소극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는 전자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인격성의 개념은 동시에 자기 법칙수립 적이며 그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 또한 포함하고 있다. 자유의 소극적인 의미인 ‘~로부터의 자유’는 그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은 보다 더 내용이 풍부하고 생산적인데, 이는 순수한 그 자체로서 실천적인 이성 자신의 법칙 수립이다.¹⁷⁾ 그러면서도 의지는 모든 행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법칙이라는 명제¹⁸⁾로부터 다시 의지의 자유는 자율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자율은 ‘~으로

15) I. Kant,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2권), 아카넷, 2006, p.732. <A544=B572>

16) I. Kant,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p.194. <O155>

17) 위의 책, p.92. <O59>

18)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180. <IV447>

의 자유'로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이다. 따라서 인격성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 칸트가 구상한 도덕형이상학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후자의 자유인 적극적 의미의 자유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

적극적 의미의 자유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적 의도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의 순수이성의 세 번째 이율배반에서 구출해 냈던 자유 개념은 자유의 초월적 이념이다. 그리고 칸트는 이 자유의 초월적 이념에 자유의 실천적 개념이 근거해 있다고 밝힌다. “실천적 의미에서 자유란 감성의 충동에 의한 강제로부터의 의사의 독립을 말하”¹⁹⁾는데, 다시 말해서 의지의 자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경험 개념이 아니고 단지 이성의 이념이다.²⁰⁾ 이러한 자유라는 이성의 이념은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구상하는 도덕법칙의 전제로서 요청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필연적인 실천 법칙들(즉 도덕 법칙들)이 있으므로, 만약 이 법칙들이 그것들의 구속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어떤 현존재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면, 이 현존재는 요청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이 일정한 조건이 추리되는 그 조건적인 것 자신이 선험적으로 단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¹⁾

여기서 칸트는 도덕법칙을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어떠한 현존재를 필연적으로 전제할 때, 그 현존재는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유가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다. 또 자유는 사변 이성의 모든 이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아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법칙의 조건이라고 말한다.²²⁾ 이렇게 도덕법칙의 조건으로 요청되는 자유는

19) I. Kant,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2권), 아카넷, 2006, p.725. <A534=B562>

20)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198. <IV455>

21) I. Kant,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2권), 아카넷, 2006, p.803. <A634=B662>

22) I. Kant,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p.37. <O5>

실천적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도덕법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이나 경향성으로부터 독립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이 독립이 실천적 자유이다. 이러한 실천적 자유는 우리의 현상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혹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도덕법칙에 대해서 사유할 때에 알 수 있는 것이다.²³⁾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적 자유는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에 의해서 근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법칙에 의해서 인식 가능한 실천적 자유라는 경향성 등에 대한 독립성은 다시 자연 필연성으로부터의 독립인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자유에 의해서 근거된다. 그런데 칸트는 이때의 실천적 자유가 경향성과 같은 자연 필연성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다시 말해서 자연법칙들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무법칙적이지 않다고 말한다.²⁴⁾ 자연적 필연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실천적 자유를 자유의 소극적 의미라고 할 때, 이 실천적 자유는 의지를 도덕법칙에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이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 이 실천적 자유로 인해서 의지가 도덕법칙에 따르게 될 때, 실천적 ‘자유’와 도덕‘법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실천적 자유는 자연‘법칙’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지만 도덕‘법칙’에 있어서는 부자유하며 그에 종속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실천적 자유를 도덕 법칙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독립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²⁵⁾라는 언명도 실천적 자유가 도덕 법칙에서 부자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기도 한다.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자기 법칙수립 적이라는 개념과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지를 나란히 놓고 고찰해 볼 경우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자유가 도덕법칙에 따른다는 것은 의지의 자율

23) 실천적 자유가 도덕법칙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칙을 통해서 이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이 순환적으로 보일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칸트는 이에 대해서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나,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p.37, <O5> 에서 칸트의 주 참조.)

24)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p.179~180. <IV446>

25) I. Kant,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p.207. <O168>

과 관련되어 설명되는데, 의지의 자율이란 의지가 그 자신에게 법칙인 그런 의지의 성질²⁶⁾이므로 도덕법칙이 자유 개념에 의해서 근거되고 이 자유로운 의지가 자기 법칙수립 적일 경우라면, 이때의 실천적 자유란 이제 자율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칸트가 『윤리형이상학정초』에서의 논의를 통해 도출해 낸 두 가지 정언명령의 보편성과 목적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도덕법칙은 경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이성으로부터 생겨나야 한다. 따라서 “의지의 원리를 보편적 실천 이성과 조화하게 하는 최상의 조건(…), 즉 보편적 법칙 수립의 의지는 개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라는 이념”이 나온다.²⁷⁾ 이러한 “의지는 단지 법칙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또한 자기 법칙수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비로소(그 자신이 이것의 창시자로 간주될 수 있는) 법칙에 종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종속된다.”²⁸⁾ 따라서 의지의 자유는 스스로 법칙수립 적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자신의 법칙이므로 법칙을 따르면서도 그 법칙이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칙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이고 또, 자율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칸트의 인격 개념은 이러한 자율에 기반해 있다.

2. 칸트 철학에서 인격이 가지는 가치

이제 앞선 논의와 같이 자율 개념에 기반해 있는 칸트의 인격 개념이 그의 실천철학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해명을 할 것이다.

칸트 철학의 대상은 인간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성적 존재자이다. 이때의 이성은 경험 세계에 대해 인식작용을 하는 사변이성일 뿐

26)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169. <IV440>

27) 위의 책, 152. <IV431>

28) 같은 곳.

아니라, 예지적 세계에 속하는 도덕법칙을 인식하여 자연 세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실천이성 또한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적 능력을 갖는 이성적 존재자를 칸트는 인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은 단지 그의 경향성에 따라서만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말미암아 경향성에 독립해서 의무로서 다가오는 도덕법칙에 맞게 행위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격 개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이 항상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있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선의 근원적 소질”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것은 1) 생물로서의 인간의 동물성의 소질 2) 생물이면서 동시에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인간성의 소질 3) 이성적이며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인격성의 소질이다.²⁹⁾ 여기서 동물성의 소질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본성이다. 인간성의 성질은 비교하는 자기애의 성질이라고 설명된다. 그리고 인격성의 소질은 그 자체에 있어서 선택의지의 충분한 동기가 되는 도덕법칙을 존경하는 능력이다.³⁰⁾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 소질을 비교함으로써 인격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소질을 그의 가능성의 조건들에 따라서 고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첫 번째 소질은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소질은 실천적이기는 하나 다른 동기들에게 봉사하는 이성을 가진다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소질만이 그 자체로서 실천적인, 즉 무조건적으로 법칙을 부여하는 이성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³¹⁾

여기서 특히 두 번째인 인간성의 소질과 세 번째인 인격성의 소질과의 비교가 인격의 의미를 더 잘 드러내 줄 것이다. 칸트가 설명하

29) I. Kant,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신옥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33.

30) 위의 책, p.34, p.35.

31) 위의 책, p.36.

고 있는 인간성의 소질은 “다른 동기들에게 봉사하는 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조건적인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칸트가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의 말에 따르면 경향성들의 모든 대상은 단지 조건적인 가치만을 갖고,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다.³²⁾ 이러한 인간성의 소질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가치에 대한 추구가 아니며, 인간은 이러한 소질로 인해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인격성의 소질은 무조건적으로 법칙을 부여하는 이성, 즉 순수한 실천이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앞서 말한 자율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격성의 소질을 갖는 이성적 존재자는 경향성의 대상과는 반대로 “그것들의 본성이 그것들을 이미 목적들 그 자체로, 다시 말해 한낱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한에서 모든 자의를 제한하기(그리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³³⁾에 인격들이라 불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합적인 소질을 갖는 인간은 인격성의 소질 혹은 도덕법칙에 따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동물성의 소질과 같은 본능이나, 비교를 통한 자기애와 같은 경향성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본능이나 경향성들을 극복하여 도덕법칙에 따라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적인 인격을 인간성의 소질에 따라 단지 수단으로만 사용하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경향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며 그러한 한에서 인격은 그 가치를 갖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율로 인해서 물리적인 자연 세계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예지적 세계에 속함으로써 경향성이나 본능과 혹은 자연 법칙의 인과성과 구별되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인과 법칙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인과 계열의 새로운 사슬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또한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격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자연적 인과 법칙의 틀 밖의

32) I. Kant,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p.146. <IV428>

33) 같은 곳.

영향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지만 인격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와 구별되는 어떠한 것들, 예를 들면 말이나 소와 같은 동물들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자연적 원인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다른 자연적 결과를 도출하는 하나의 인과 항의 역할을 할 뿐일 것이다. 그렇지만 인격적 존재가 어떠한 경향성이나 본능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그것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인하여 도덕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와 함께 자연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전혀 새로운 인과의 계열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결론적으로 볼 때, 서론에서 쓰였던 인간의 이성과 윤리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이 둘을 상이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도덕법칙을 인식하며 동시에 스스로 이 법칙들을 수립하는 인격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칸트의 철학의 체계 안에서는 단지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만 구분될 뿐이지,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 인격은, 그것이 단지 수단이 될 수 있다던가, 혹은 경향성이나 본능에 의해서만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에 따라서, 혹은 실천이성의 빛에 따라서 행위 할 경우에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 혹은 이성적 존재자가 인격 그 자체라기보다는 인격의 가능성, 즉 실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격 개념이 갖는 실천적 함의는 자연적 인과성의 우위로 도덕을 단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세우려는 공리주의나, 혹은 이러한 도덕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역시 단지 자연의 구성물일 뿐으로

어떠한 도덕도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칸트의 도덕철학과 같은 보편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윤리학을 세우는 기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때 인격 개념은 단순한 자연적 구성물이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인간들이 지향해야 할 상태, 혹은 경지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협적으로 실천이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도덕형이상학을 일반적인 도덕들의 최고의 원리로 세우려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위치와 유사하게, 그러한 도덕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며 동시에 그러한 도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지향적 상태로서 인격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더욱 물리주의가 힘을 얻게 되고, 유전학이나 심리학 등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지적 능력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만큼이나, 오히려 타인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유전적 소질이나 혹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사고나 행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규범을 강조하는 윤리나 도덕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입장은 잘 받아들여 지지 않으며 이것들은 인위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자연스러움이 그 자체로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서양 근대에서 추구되었던 인간의 ‘이성’이라는 개념이 만능이 아니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 깨닫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맥락을 생각할 때 타당한 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팽배해져서 너무 일반화될 경우에 사회를 유지할 특정한 규범 체계를 세움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특히 책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 인과의 하나의 고리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면 근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인간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칸트의 인격 개념은 그 자체로 인간이 모두 필연적으로 인격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은 이성적 존재자인 한에서 인격일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격 개념이 가지는 실천적 함의는 최근의 세태에 반성의 여지를 남긴다. 자연 필연성의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연적 필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이념을 통해서 수립될 수 있는 칸트의 도덕법칙이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도덕을 수립하는 기초로써 여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저서

- I. Kant, 『순수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6.
 _____, 『윤리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아카넷, 2005.
 _____,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2002.
 _____,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신옥희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 백종현, 『철학의 주요개념 1·2』(『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1a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진교훈 외, 『인격-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J.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bridged and Edited by Kenneth P. Winkler)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6.

논문

- 임미원, 「<인격성>의 개념사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5.
- 하영석, 「칸트에 있어 인격성의 근거로서의 자유」, 『철학』 vol.33, 한국철학회, 1990.